

하라 분베이(原文兵衛) 이사장의 인사말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은 지난 1995년 7월 일본 정부로부터 명목과 현역에 상차관 임명된 신에겐 겐 사카에가 수장인 상치부 입선 기념으로 대한 수교국인 한국에 기증한 1995년 7월 일본 정부로부터 명목으로 약속되었습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이듬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모심으로 사죄를 진정하는 사업 및 일본 정부의 거침없는 태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업은 한국과 일본 국민들 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양국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도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위안부 문제가 거론된 이후 일본 국민들조차 수렴된 여론의 반영과 존엄을 가진 상치부 입선 기념으로 대한 수교국인 한국에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민들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해 진지한 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미 계획되어 있는 대규모의 전례를 하면서, 일본정부의 대응 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가를 요청하여 국민적인 보상(償い)의 마음을 표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후 50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생각에 찬성하는 수많은 일본국민에게서 지금까지 약 4억8천만엔의 모금이 성립되면 메시지와 함께 아시아여성기금에 보내졌습니다. 또한, 일본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을 재정적인 면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기금사업을 행할 때 일본정부에 대해하여 이 문제에 대해 다시금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실정을 보여주는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 하라 분베이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여성기금 이사장(전 참의원 의장) 하라 분베이(原文兵衛)가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하게 기대하여 지금까지 한국, 필리핀 등에서 총계 100여명 분의 분금이 신청을 하였고 이미 50명 남짓한 위안부였던 분금이 기금의 사업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기금」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도 다양한 오해와 의혹이 있었어서 총분금에 비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데 아시아여성기금은 우선 무엇보다 기금설립의 취지와 사업내용을 여러분께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광고를 내었습니다. 이후 여러분과의 거품한 대화로 통해 일본 국민의 성의있는 사죄의 마음을 한사람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이사장(전 참의원 의장) 하라 분베이(原文兵衛)

이것이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입니다.

「위안부」로 희생되신 여러분들께 일본에서 보상(償い)의 심정을 전해 드립니다.

이사장의 편지

일본 정부와 국민의 취지에 의해 만들어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은 「중군위안부」로서 중사하도록 강요받아 치욕을 겪은 피해자를 위한 위안부 보상(償い)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전쟁 때 국민들로부터 대다수의 위안부가 설치되어 그 곳에 많은 여성들이 끌려와 강박의 「위안부」로서 중사하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16, 17세의 소녀들까지도 끌려와 많은 여성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모피하거나 전쟁 후에는 직접 강제적인 수단이 사용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가가 그 희생자들의 한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로 여성을 인간적인 존엄성을 잃은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국가에게 가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서한에도 인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재의 정부와 국민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가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한 전쟁 중에 참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후 50년이란 긴 세월을 겪은 상처와 잔혹한 기억을 안고 고통스런 생활을 보내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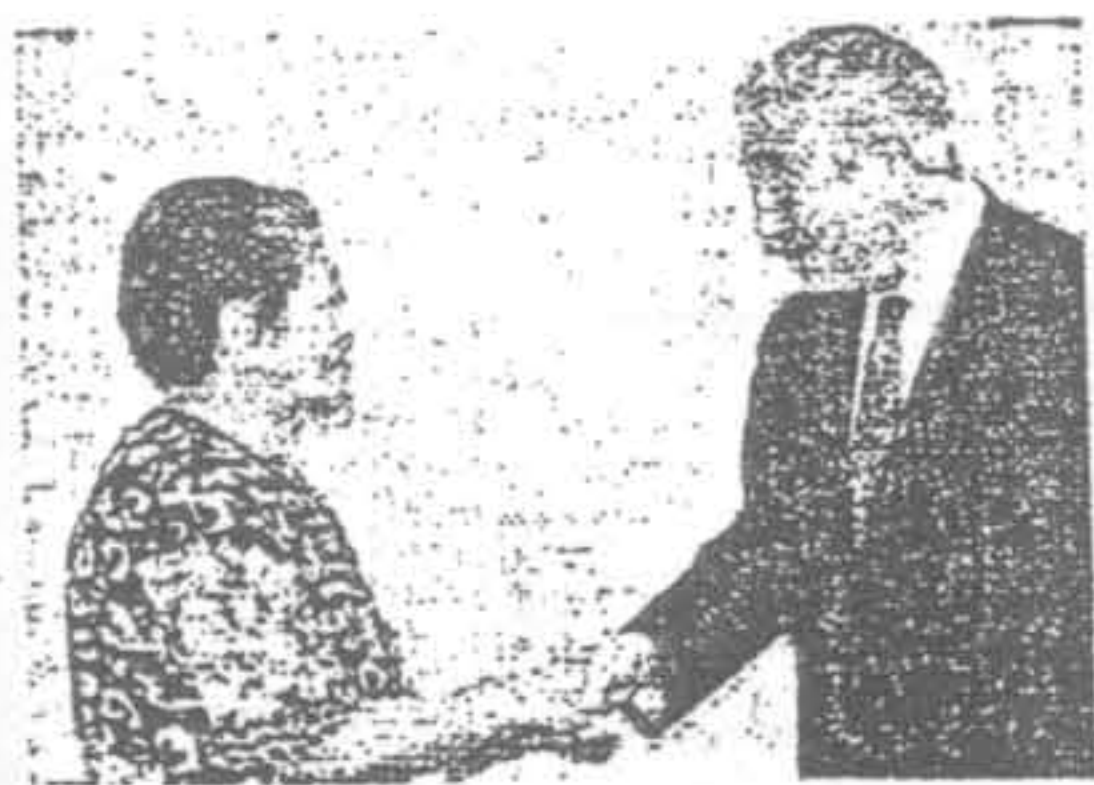
이러한 인식하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은 정부와 함께 국민에게 보급을 호소해 왔습니다. 양심이 있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호소에 응하여 인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성공과 함께 보내온 서한은 일본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보상(償い)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사죄받거나 국민적인 대가로서 권리의 상에의 고통이 지워지리라고는 믿어도 못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무면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결의의 뜻으로 이 사죄금을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은 계속해서 민간 정부와 함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보상(償い)」사업,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한 자료 조사 연구 사업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밝혀주신 자료가 저희는 새로운 자료가 되고도 좋을 것입니다. 귀하의 고충과 용기를 일본 국민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답장이 편안하시길 기원합니다.

1997년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이사장 하라 분베이(原文兵衛)



필리핀에서도 사업을 실시

필리핀의 전 「위안부」였던 카리아·토사·토나·한지현 등은 동경(東京)에서 하라 이사장에게 여성기금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진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 1996년 8월 14일, 마닐라에서 내각총리대신의 서한, 「사죄금」을 받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제도에서는 1997년 8월 19일 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양년(兩年) 69세였습니다.

총리의 서한

이번에 정부와 국민이 이렇게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은 「중군위안부」로서 희생된 분들에게 우리 나라의 국민적인 사죄를 표하는 사업이 성취됨에 따라 정부와 국민은 감사의 마음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일본과 중군위안부 문제를 앞서 국민들의 편에 서서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소위 중군위안부로서 수감된 모욕을 겪고 신원정당에 정작 시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일으킨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각성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부끄러움으로부터 리해를 향한 책임으로부터도 도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총괄하면서 사죄와 반성의 뜻을 인정하고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여 이것을 후세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부당한 독재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으로 여러분들과 앞으로의 인연이 복은하시기를 충심으로 바칩니다.

1997년
일본 내각총리대신
하시모토 류타로(橋本 龍太郎)

〈아시아여성기금관련 주요사업〉



중군위안부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전달할 것

-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서한
일본 국민의 보상(償い)의 심정을 표하는 「사죄금」은 전달할 때 일본 정부 대표하여 다시금, 사죄와 반성의 심정을 표하는 내각총리대신의 서한이 보내집니다.
- 사죄금
일본 국민의 보상(償い)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본국민에게서 모금으로부터 「중군위안부」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한사람당 200만엔을 「사죄금」으로 전달합니다.
- 의료·복지 지원 사업
일본 정부가 도의적 책임을 성실히 지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거금도 「중군위안부」로 희생되신 분들이 이용할 병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개선, 개호서비스, 의료·의약품 보조금, 본인에 의한 사경과 희망에 부합하도록 실시됩니다. 이 의료·복지 지원 사업은 전 「위안부」 분들에게 한사람당 초년도에는 228만엔, 2년도부터 5년도까지는 각 158만엔, 합계 5년간에 300만엔 규모로 실시됩니다.
- 기타
이상에 더하여, 「사죄금」을 전달할 때 아시아여성기금에 모금과 함께 보내진 일본국민의 메시지, 그리고 일본 국민의 보상(償い)의 심정과 「기금」 사업의 취지를 밝힌 하라 분베이(原文兵衛) 이사장의 서한을 보냅니다.

우리들의 심정(모금자의 메시지)

○얼마 안되지만 취지에 동의하므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민간 차원의 보상(償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보상(償い)이 실시될 것을 희망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 이 나라의 과거의 잘못이나 역사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중군위안부를 하도록 강요된 여러분께 일본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 전정을 모르는 27세의 젊은이로부터

○우리들이 후하게 반성과 사죄를 하여 과거를 청산하고 그 후 미래를 새롭게 세우 나가야 합니다. 부친이 중국에 끌려갔던 때에 열려가 됩니다. 국민으로서 자신으로서 「중군위안부」 분들에게 조금이나 사죄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금이라도 서 후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본 국민에게서 성금

「위안부」였던 분들과 중세대, 전후세대, 학생들의 여러분들한테서 일본인으로서 또한, 인간으로서의 사죄와 보상의 마음을 진정해 달라는 메시지도 많이 보내져 오고 있다. 정기적으로 기부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도 있다.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 대상자 및 접수기간

- 대상자
한국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받은 분이며, 1995년 7월 19일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의 설립(날) 현재 분 명하시는 분, 또는, (그날 이후 본인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배우자 및 자식) 등의 대표자 1명.
- 접수기간
1997년 1월 11일부터 2002년 1월 10일까지
- 신청서의 수취 및 제출
상기 1.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하기 연락처에서 신청용지를 입수하여 상기 1.의 접수기간내에 아시아여성기금 앞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계되는 현대적인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성 전용 사업〉
아시아여성기금은 여성에 대한 폭력적 모욕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일본정부도 아시아여성기금이 하고 있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국민들 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양국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도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사업〉
아시아여성기금은 이 문제와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미래에 그와 같은 문제가 두 번 다시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 사업의 지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기금내 「위안부」 관련 자료의 수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약칭:아시아여성기금)

이사장 하라 분베이(原文兵衛)
〒107 日本国東京都港区赤坂2-17-42 赤坂ANNEX 전화: 0078-81-1-0254(통화로 무료) 팩스: 001(002)-81-3-3583-9347
http://www.fastnet.or.jp/awfund